

## \* 미국

## 백악관,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백악관 데모 데이(Demo Day)' 열어<sup>1)</sup>

글 : 이상엽 (sylee1@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4일에 'White House Demo Day'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미국 전역으로부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지닌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성공적인 창업 이야기를 듣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악관이 이러한 'Demo Day'를 개최한 주된 이유는 창업을 통한 혁신의 발굴이 미국 경제에서 갖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창업이 특정 사람들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창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창업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창업에 참여하는 인구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로부터 지원 받은 스타트업 중에 오직 3%만이 여성에 의해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흑인에 의해 설립된 스타트업은 전체의 1% 미만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등 일부 주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하고 있는데, 2014년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은 그 외의 미국 지역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 투자 받은 금액의 합 보다 많았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 벤처 캐피탈 업체가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300개의 스타트업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창업 멤버로 구성된 스타트업이 남성들로만 만들어진 스타트업 기업 보다 평균적으로 63% 더 나은 실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최근에 발표된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다 다양한 백그라운드(인종, 성별 등)를 지닌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더 좋은 기업 성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혁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창업 문화의 확산을 위해 'Demo Day'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창업 참여를 유도코자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으로 개발된 신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I-Corps 프로그램 확장 운영

1) 자료: J. Erickson & D. Rand(2015.08.04), "Entrepreneurs Demonstrate their Innovative Ideas at the First White House Demo Day",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2) 구직자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고, 기술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TechHire'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 3) 여성과 흑인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창업을 위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의 지원 확보(Andreessen Horowitz, Intel Capital, Kleiner Perkins Caufield Byers, Scale Venture Partners 등)
  - 4) 주요 공과대학들이 보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지닌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키로 함
  - 5) 다수의 IT 기업들(예, Amazon, Box, Microsoft, Pinterest, Xerox 등)이 여성, 흑인 등 다양한 인력을 채용키로 함
  - 6) 'Open for Innovation' 이라는 행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이 같은 내용 이외에도, 이날 'White House Demo Day'에서는 미국 각지에서 모인 서로 다른 백그라운

드를 가진 창업자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혹은 기획 중인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연하는 기회를 가졌다.<sup>2)</sup> 이날 시연에 참여한 창업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했다는 것 이외에도, 특이한 백그라운드와 사연을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방식의 검색 엔진을 개발한 교통사고로 인해 11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여성 창업자, 자신이 암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암환자들을 위한 앱을 개발한 창업자, AIDS로 부모님을 잃은 것을 계기로 새로운 방식의 HIV 테스트 기를 개발한 창업자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창업자들이 참여했다. 백악관은 이런 자리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타트업을 발굴·홍보하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백악관은 이날 행사 외에도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노력과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 'Demo Day'에 참여한 기업과 제품 정보: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white\\_house\\_demo\\_day\\_exhibitors\\_1.pdf](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white_house_demo_day_exhibitors_1.pdf)